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30분
주일에배 오전(3부) 10시
오후(4부) 2시
금요일회 (밤) 8시30분
서울 교회 1600-0688
장소: 강서구 화곡동 KBS 88체육관

Jesus Centered News

오전(1부) 7시30분
오전(2부) 10시
주일에배 오전(3부) 2시
저녁예배 7시30분
수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5년 2월 1일 (제779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 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 575-5730 http://www.jcc.tv(철야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봉우 컬럼

그런데~

작년 연말에 한 사업가를 상담한 일이 있다. 하도 간청을 하길래 정말 바쁜 틈을 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권면하고 해법을 제시했다. 그는 열심히 듣는 듯 했다. 상담이 다 끝나고 흔들어 놀러 축복기도를 해주고 있는데 그가 한다는 말, “목사님, 그런데요~ 그게...” 이러는 것이다. 실컷 상담해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다. 내가 요즘 세상을 잘 모른다나? 자기 생각에는 이렇다나? 기가 막혔다. 그래서 그에게 “당신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짚어줬다.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첫째, 주의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받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의 종을 말을 꺾고 자기주장을 하는 것이다. 둘째, ‘그런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나 주의 종의 권면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렇더라도 일단 순종해야 옳은데,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과 다르다고 해서 ‘그런데~’하고 토를 단다면 그런 그를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실까. 성경도 “모든 이론을 과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비하는 중에 있노라”(고후 10:5-6)라고 말씀하거늘. 나는 ‘그런데~’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싫다. ‘~그런데’라고 토를 달려거든 아예 상담하러 오지 말라. 이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고, 나도 모욕당하는 기분이 드니까. 부모 말씀에도 ‘그런데~’하지 말라. 부모님들 기분 안 좋으실 게 분명하니까. ‘그런데요~’, 이것은 축복의 걸림돌이다. 걸림돌을 제거해야 구름 없는 아침 햇살 같은 축복이 다가올 것이다.

새로운 30년의 출발, 코스타리카

“나는 목회 30년을 지나 다시 새로운 30년을 시작하는 첫 집회를 이곳 코스타리카(Costa Rica)에서 시작합니다. 나는 처음 개척하는 심정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이번 산호세(San José) 집회를 마치고 하루 더 집회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코스타리카 집회를 배설한 가브리엘(Gabriel) 목사가 다른 도시에서도 예배를 인도해주실 수 있냐고 요청했을 때,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뽀뽀한 집회 및 세미나 일정을 소화하고 휴식도 없이 진행되는 강행군이기에 결코 녹록치

“내가 이 도시와 나라를 살리려 내 종을 데리고 왔다. 내 종의 말을 들어라!”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세미나는 온통 은혜의 도가니였다. 하나님께서 가톨릭을 통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중남미 지역으로 목사님을 자주 보내시는 뜻을 알 것 같았다.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뜻 말이다. 저녁에는 산호세 근교 뽀파레나스(Puntarenas)에서 집회가 열렸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동일한 메시지로 하나님의 의도를 전하고 또 전하셨다. 목사님 메시지의 핵심은 성령을 받고 하나님 자녀의

통을 방불케 했다. 목사님의 와이셔츠는 온통 땀으로 젖었고, 얼굴에는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있었다. 정말 혼신을 다하는 모습이였다. 집회를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려는데, 한 17세 소녀가 장기가 썩어 들어가는 병으로 차 안에 누운 채, 부모와 함께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 부모로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찾아왔음이 분명했다. 목사님은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 소녀의 환부에 손을 대고 간절히 기도해주셨다. 다음날, 오전에 실업인 세미나가 열렸고,



코스타리카 산호세 - 미라마르 집회 광경

않은 일정이었지만, 목사님의 각오는 분명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목사님의 이런 각오를 읽으셨는지, 첫 시간부터 방언통변을 통해 목사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직접 밝히셨다. 목회자협의회에서 주관한 환영식 만찬 후, 다음 일정으로 진행된 목회자 세미나는 교회협의회장인 프란시스코(Francisco) 목사가 시무하는 교회에서 열렸는데, 우리가 도착하기 전부터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로 성전 안은 웅성할 틈 없이 가득 차 있었다. 설교를 마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목회자들이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다. 그리고 그 중 한 목회자의 입술을 통하여 방언통변이 쏟아졌다.

권세를 받아 이 세상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능력의 크리스천들이 되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목사님은 돈, 휴대폰, 마이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도구들을 들어 비유로 가르치셨다.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은 모든 병자들을 단상으로 불러올려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 기도해주셨다. 병어리가 말을 하며, 안경을 껴도 잘 안 보인다는 소녀가 고침을 받아 벽에 있는 글씨를 읽기 시작했고, 걷지 못하던 청년들이 목사님의 안수를 받고 걸으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실내엔 에어컨 시설도 없어 선풍기를 돌려내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이것마저 예배에 방해가 된다고 끄라고 하셨기에 쥘

저녁에는 다시 북쪽으로 30분을 이동하여 미라마르(Miramar)라는 고산지역의 한 교회 야외마당에서 집회를 가졌다. 목사님은 개척시절, 여러 교회를 다니며 집회를 해주던 때가 기억나신다며 어디서든 최선을 다하자고 말씀하셨다. 세 도시의 집회가 계속되는 가운데 우리는 다시 집을 꾸려 북쪽으로 이동했다. 2시간이면 간다는 길이 무려 6시간, 꼬불꼬불 산길을 오르락내리락 하며 어지럼증에 기진맥진한 상태로 도착한 산카를로스(San Carlos).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기다리고 있었다. (다음 주에 계속)

한은택 전도사

henry8829@naver.com



코스타리카 산호세 - 뽀파레나스 집회 광경



산호세 - 뽀파레나스 시장 및 목회자들의 환영식



장기가 썩어가는 소녀를 위해 기도하시는 목사님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마16:15~24)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다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죽음을 피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볼 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후에 우리 모두는 심판대에 서야 합니다. 심판대에는 예수님이 앉아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심판의 기준입니다. 이 심판은 사람의 시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느냐로 심판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시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깜짝 놀란다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했던 사람이 천국에 있어서 놀라고, ‘저런 사람이 왜 천국에 와 있지?’ 하고 또 놀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은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사55:8~9).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마16:15)라고 묻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베드로에게 천국열쇠를 주시고는 베드로라는 이름처럼 초석이 되어 교회를 세울

게서 이미 계획하시고 섭리한 바대로 예수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수난받고 죽어야 한다는 것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 곧 예수가 수난의 현장에 가면 안 된다는 인간적인 생각에 집착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드리려고 분주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 코앞에 앉아 말씀만 듣고 있었습니다. 마르다는 화도 나고 손도 모자라 예수님께 마리아 좀 내보내라고 말하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눅10:42). 하나님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아주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가 있다 보니 우리 성도들이 이제 해외집회는 그만 했으면 합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지요. 다 저를 생각하고 염려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아직 제 힘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알기에 저는 세계로 달리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도 하나님의 시각과 사람의 시각 차이가 여실히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이새의 아들 중에서 차기 왕을 택하실 것을 사무엘 제사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방문하는데, 사무엘이 보니 이새의 아들 중 엘리압이 왕으로 손색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와는 중심을 보느니라”(삼상16:7). 한 마디로 ‘네 시각과 나의 시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무엘은 이새의 일곱 아들을 지나 양을 지키던 막내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은 사람의 눈으로 보았기에 하나님의 시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별 볼 일이 없어 보입니다. 대단한 학벌을 가진 것도 아니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가문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외모가 잘 난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낫고, 더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

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을 부

무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고후 6:9~10). 누가요? 우리가 이런 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벌 부러워할 것 없고, 연예인처럼 안 예쁘다고 절망할 것 없습니다.

우리 교회를 봅시다. 우리 교회는 성전도 없지요, 예배 시간에 이리저리 뛰어 다니는 아픈 성도도 있습니다. 명사나 대단한 인물은 거의 없고 노인이나 노숙자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형편없는 교회일 수 있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세계최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길 잃고 상처 입은 영혼들, 마음이나 몸이 병든 자들을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 교회처럼 멋지고 아름다운 교회가 세상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선교사로 일하다 몸이 약해져서 돌아오는 모리슨 목사(H.C. Morrison)가 탄 기선에 우연히 아프리카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당시의 대통령 루스벨트(T. Roosevelt)가 동승했습니다.

배가 뉴욕에 도착하자 수많은 인파가 부두에 모여 합성을 질렀고 취주악 연주까지 동원되어 대통령을 환영했습니다. 대통령 일행은 아프리카에서 잡은 짐승을 들어 올리며 환영인파에게 답을 했습니다. 모리슨 목사는 서글펐습니다. 평생을 봉사하다 병이 들어온 자신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때 모리슨 목사의 머리에서 이런 음성이 들렸습니다. “나는 너를 보고 있단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크고 넓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기준이란 무엇일까요? 알아야 그 기준에 맞춰 우리가 살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관점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4~5절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여호와와의 말씀을 좇아’ 갔기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갈 때 마침내 주님이 계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절대 우리 뜻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이나 지식을 깨트리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관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심판대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더구나 심판대에 설 날이 머지않았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심판대에서 천국이나 지옥이냐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신념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에 맞추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고후10:4~5). 그리고 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과연 합격점인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 심판대에서 예수님이 공력을 불에 태웠을 때 남은 것이 없다면 그야말로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실컷 신앙생활 해놓고 심판대에서 아웃당한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천국에 들어가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자문자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153 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ARS(5000원)
(060)700-0688

은행계좌안내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예금주 : 예수중심교회



주님은 내 편이시라

나는 어릴 때부터 30년을 교회에 다녔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문턱만 밟는 믿음생활을 하던 중 섬기던 교회의 목사님의 사모님의 인도로 장성 기도원에서 열린 신년 집회에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 안수를 받는 순간 늘 소화제를 먹어야 할 만큼 좋지 않던 질병이 치료되고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 기도원에서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무언가를 해드리고픈 마

음이 간절하게 되었다. 때 마침 총회장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 기도원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하셨다. 다음 날 어판장에 나갔더니 어장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혀 들어왔다. 당시 생선 중개업을 하던 나는 아내와 의논하여 오징어를 사서 화물차에 가득 싣고 기도원에 갔다. 총회장 목사님을 만나 뵈었더니 목사님이 기뻐하시며 축복기도를 듬뿍해 주셨다. 학개서 2장 6~8절의 말씀을 근거로 해주신 축복의 명을 '아멘'으로 받고 돌아온 후,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소명으로 주셔서 신학을 하고 주의 종

길을 가게 되었다.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종으로 사용해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하여 최선을 다한다. 어릴 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해주세요." 라고 나도 모르게 기도하곤 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 삶에서 실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내 입술의 간구를 거절치 않으신다는 시편 21편 2절의 말씀을 실감하게 되었다. 주의 일을 하기로 결심하면서 전 재산인 집을 팔고 아이들의 교육 보증을 해약하여 하나님께 드렸었는데, 주님께서 내 아이들의 학비를 책임져 주시고, 주거 문

제를 해결해 주셨으며 총회장 목사님의 축복 기도대로 많은 복을 내려 주셨다. 항상 '주님은 내 편이시라'는 시편 118편 6절의 말씀과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 부족한 자를 사랑하시고 써주시는 주님께 무한 영광을 돌리고, 총회장 목사님께 감사를 드린다. '30년을 새롭게 시작하자'는 총회장 목사님의 믿음의 고백이 나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어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나누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길 기도한다.

아산예수중심교회 박인택 목사

하나님이 쓰시는 종, 우리 목사님



제가 6살 때 우리 집 온 가족이 교회에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러다 초등학교 때 우리 가족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병 고침을 받는 체험을 했습니다만 성령을 받지 못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를 거쳐 청년기를 보낸 후 고향을 떠났습니다. 늘 마음속에서는 신실한 신앙을 원했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그때 지인으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1986년 이초석 목사님의 부친집회 소식이었고, 지인이 말하기를 목사님의 설교는 마치 눈에 심은 씨가 가뭄이 극

심해서 시들어 다 죽게 되었을 때, 농부가 양수기로 물을 퍼 올릴 때의 그 시원함과 벼가 살아나는 기쁨으로 비유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주에 마가의 다락방 철야예배에 처음으로 참석했는데, 그날 은혜의 단비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철야예배는 계속 참석하고 주일은 작은 개척교회에 가서 섬기면서 신앙생활을 하기로 마음먹고 기도하던 중 꿈을 꾸었습니다. 그것은 이초석 목사님과 식사하는 꿈이었고, 제 아내는 방언 통역으로 "내가 쓰는 종이다. 내 종을 따르라."는 응답을 받아 감리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하던 제가 바로 교회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 철야예배 때에 성가대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자

리에 가고픈데, 목사님의 설교 중에 성가대원도 성령 받지 않은 날탱이는 소용없다는 말씀에 기다리다 87년 성가대로 인도되었습니다. 그 후로 성가대 총무로, 90년에 성가대장으로 직분을 받고 섬겼습니다. 92년에 올림픽 주경기장 집회와 부천시민회관의 성가합창제는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영적체험을 했습니다. 꿈에 제가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자에게 기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애플 때 귀신을 추방하니 나갔습니다. 한번은 설 전날 고향에 갔더니 친척 할머니께서 풍으로 쓰러져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와 가족에게 귀신에 대해 설명을 하고 귀신을 추방하니 나갔는데, 다음날 기적이 일어났습

니다. 할머니께서 걸어서 우리 집에 오신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너무 무지했던 저와 많은 성도들을 제자화하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 제가 영적으로 잘못 판단하고 가려하면 꿈과 계시로 보여주시고 인도하신 성령께서 2년 전 부친집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저에게 "1. 내가 쓰는 종이다, 2. 판단하지 말라, 3. 내종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일깨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중심교단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시대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 변질되지 않는 교회가 되길 바라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인천예수중심교회 이동희 장로

믿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예수님



저는 충청도 두메산골에서 할아버지는 중, 할머니는 보살로 3부처를 모시는 집의 손자로 태어나 예수를 전혀 모르고 장성했습니다. 저는 교육을 마친 후 경찰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시골에 계신 장인께서 전기 감전으로 갑자기 돌아가셔서 우리 부부는 장인 장례를 잘 치르고 왔는데, 갑자기 아내의 손이 꼬부라졌습니다. 그 때 처음으로 이초석 목사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어 병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 후 형사생활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눈과 입이 돌아가 말을 할 수 없는 반신불수의 몸이 되었습

니다. 한약과 양약으로 치료하였으나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교회에 가서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 안수 받으면 병이 낫는다."는 아내의 말에 오직 병 고침 받기 위하여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회 때에 목사님이 "김수현, 나와!" 하여 속으로 '내가 형사인데 창피하게 왜 많은 사람 앞에서 나오라고 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아집을 깨고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이끌려 단위에 오르자 목사님은 "야! 이 더러운 귀신아, 이가 귀신 잡는 해병이 아니고 귀신 잡는 형사야, 나가!" 하며 귀신을 쫓자 나도 모르게 뒤로 벌렁 나가떨어졌습니다. 그러자 귀신이 떠나고 거짓말처럼 눈과 입이 제대로 돌아와 말을 하게 되고 직장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저를 그냥두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절도, 폭력, 강간범 등 죄인을 호송차량에 태워 가던 중, 호송신호대기를 하고 있는데 절도범이 수갑을 풀고 도망갔습니다. 못 잡았습니다. 전국 경찰에 비상이 걸리고 경찰서에 수십 명의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제야 생각이 납니다. 이건 경찰서장도, 대통령도 도울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경찰서 민원실 옆 화장실로 얼른 들어가 "알라바바디 알라바바디아!" 라고 갯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이 한 맺힌 기도를 한 것처럼, 나도 파면이나 징계 받지 않으려고 한 맺힌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친 후 두 손을 들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돕는 천사들아, 탈출

한 탈주범을 모두 잡아들여라." 하고 미친 듯 몇 차례 명령하였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기도한 지 3시간 만에 탈주범이 잡혔습니다. 경찰서장님도 범인이 탈출한 것은 분명히 중죄감이지만 신속하게 사건처리를 잘 했다고 오히려 위로를 했습니다. 36년간의 경찰 일을 마치고 은퇴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가정도 직장도 모두 잃을 뻔 했습니다. 목사님을 만난 일이 제게는 행운 이상입니다.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 앞으로 30년 주님과 함께 더 큰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김수현 장로



중고등부가 동계수련회를 가졌습니다



서울교회 중고등부



인천교회 중고등부

한 나라의 미래는 젊은이들에게 달려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젊은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젊은이가 있어 우리는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ture promising!)” 라는 주제로 3일간 진행되었는데, 이번 수련회의 특징은 현대인, 특히 중고등학생들이 24시간 끼고 사는 핸드폰을 놓고 오직 성경책 한 권을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과 찬양, 기도 등 영적인 충전을 했다는 것이다. 둘째 날 저녁예배를 통해 이 시대 목사님은 ‘조급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청소년들에게 전해주셨다. “여러분의 세대는 120세 시대. 인생은 길다! 절대 조급하지 말고, 여유 있는 마음을 가져라! 허둥대고 털렁

했을 것이다. 다윗도 7년 반, 요셉도 13년, 예수님도 30년 훈련하셨다. 충분히 준비된 사람은 나중에 더 빨리 갈 수 있다. 천릿길도 한걸음부터라는 심정으로 준비하라. 한 계단씩 올라가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동계수련회는 서울 하늘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맑은 하늘을 기도원 잔디밭에 누워 바라보았던 휴식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조로 영접하고자 원하는 친구들에게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한 성령의 밤, 모두가 하나의 목적, 모험과 도전을 위한 결단, 변화를 위한 결단으로 가득 찼던 시간들이었다.

같은 시간 인천교회에서 “다시 태어나자, Bom again!!”이란 주제로 동계수련회가 1박 2일동안 진행되었다. 인천교회 담임인 장영국 목사님은 “다시 태어나자”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셨다.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는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 ‘응애!’하고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정신을 바꾸어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신28:1)’이라고 나와 있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생각과 계획을 가질 지라도 행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자!’ 라는 이 주제가 우리의 희망사항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라 행함으로 옮겨 실천하여 민족 위에 우뚝 서는 축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선전들이 걸어온 그 길을 발판 삼아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승리한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지금의 예수중심교회가 있도록 해주신 윗세대들의 신앙을 본받아 여호수아의 세대처럼 승리하는 제2세대가 되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썩고 죽은 모든 것들을 잘라버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 새로운 마음과 생각으로 이전 세대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세대가 태어나는 뜻깊은 동계수련회였다.

젊은 교회, 젊은 생각이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미래상이다. 이를 이룰 자는 바로 청소년들이다. 이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깊게 설 때 우리 교단의 미래는 밝아올 것이다.

수련회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천명 교사(서울), 꺾이레 전도사(인천)

지난 19일, 서울과 인천교회 중고등부가 동계수련회를 했다. 동계수련회는 서울교회는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에서, 인천교회는 인천교회에서 각각 진행되었다. 당초 연합수련회를 계획했지만, 여러 여건이 맞지 않아 각각 이루어졌다. 서울교회는 “모험과 도전 없이는 약속된 축복을 누릴 수 없다!(Without challenge and adventure, neither the fu-

대고,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다. 우리가 조급한 이유는 욕심 때문이다. 사도바울은 조급하지 않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깨진 후 아라비아에서 3년, 그의 고향 길리가야 다손이라는 곳에서 10년의 준비를 했다. 바울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바로 전했다면 그가 선교생활은 성공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위대한 성경을 우리에게 남기지는 못

미생(未生)에서 완생(完生)으로



저는 향교의 유생장(將)을 지내신 조부(祖父)로 인해 유교적인 가정에서 태어나 예수의 이름을 들을 수도, 받아들일 수도 없는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린 마음에도 늘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증으로 목말라 했고, 엄격한 가정환경 탓에 상처 많고 소극적인 성격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시절 집에 돌아오면 언니가 항상 테이프를 틀어놓았는데, 무심히 듣고 지나치기만 했던 그 목소리와 목소리가 어느 날부터 심령에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에게 물었더니 그 분이 이초석 목사님이시며 기도원에서 집회도 자주 여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언니를 따라 당시 예루살렘교회와 기도원집회를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이초석 목사님의 불을 뿜는 듯한 설교와 기도훈련, 성령이 역사하는 모습 속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완전히 변화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일깨워주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무력했던 제 자신의 진짜 정체성을 깨달으며 내성적인 성격이 180도 바뀌었고, 매사에 적극성을 갖게 된 것은 물론이요, 주변인들에게 주저 없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삶의 목적과 지혜가 담긴 목사님의 메시지들이 제 삶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인 세계에 대한 가르침 덕분에 악한 영과의 싸움에 매번 승리할 수 있는 눈과 힘을 얻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제사를 지내던 방에서 우연히 저를 노리는 악한 영적 존재를 눈으로 직접 목도하고 일주일 동안 잠을 이루지 못하며 두려움에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이초석 목사님을 만나 성령을 받고 영적 세계에 대해 알게 된 이후 악한 영적 존재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쫓김의 대상일 뿐이며, 이러한 목사님의 가르침이 결단코 성경적임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사람의 평가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고민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교훈이 되어 곳곳이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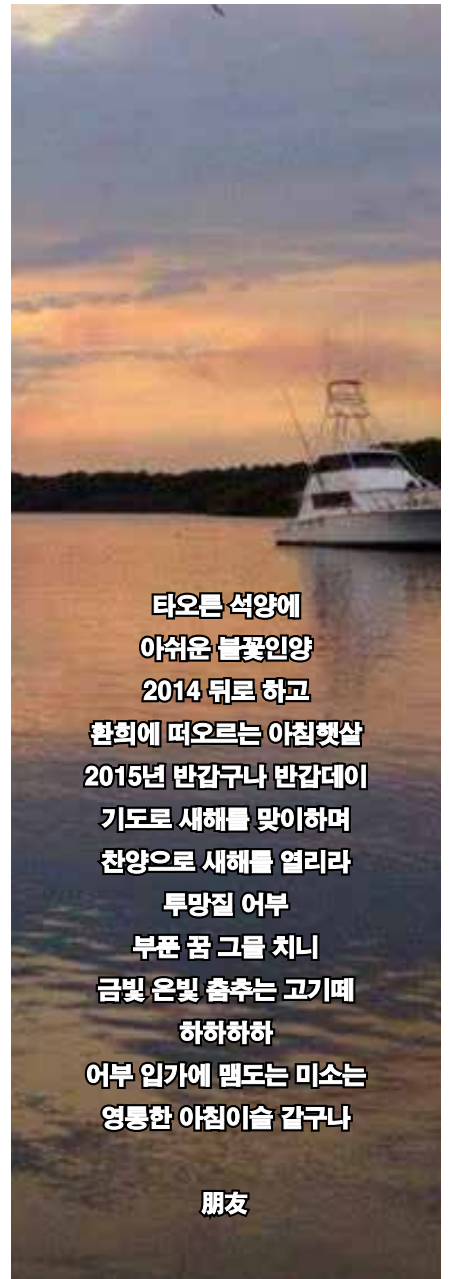
중국에 머무르던 시절입니다. 그 지역에 예수중심교회가 없었던 관계로 인터넷 예배를 꾸준히 드리고 있었는데, 하루

는 기도를 할 요량으로 인근교회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호의적이던 교인들이 제가 예수중심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듣자 갑자기 차가운 태도를 취하며 말조차 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은 만큼 그들을 비난하거나 시험에 들기보다 오히려 주변의 지인들을 전도하여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만 집중했습니다. 이후 그런 저의 모습에 교인들의 시선이 조금씩 누그러졌음은 물론이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모습으로 설 수 있었다는 기쁨이 흘러나왔습니다.

향수를 감싼 종이는 향내가 나고 생선을 썬 종이는 비린내가 난다고 하는데, 17년여 동안 제가 넘치는 은혜를 받은 이초석 목사님은 오직 예수만을 담은 예수 향기로 가득한 분이십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30년을 하루같이 예수그리스도의 사도되어 이 험한 시대의 풍랑 위를 믿음으로 걸으시는 목사님의 뒷모습을 따를 수 있음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만남의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2015년을 원년 삼아 또다시 30년을 뛰자고 외치시는 목사님의 지치지 않는 열정을 본받아 이제 저희 젊은 세대들도 함께 뛰겠습니다.

서울예수중심교회 하인명



타오른 석양에
아쉬운 불꽃인양
2014 뒤로 하고
환희에 떠오르는 아침햇살
2015년 반갑구나 반갑데이
기도로 새해를 맞이하며
찬양으로 새해를 열리라
투망질 어부
부푼 꿈 그물 치니
금빛 은빛 춤추는 고기떼
하하하하
어부 입가에 맴도는 미소는
영롱한 아침이슬 같구나

朋友